

韓 AI 빅데이터 기술, 국제표준 채택… 新시대 주도

<인공지능>

단계별 요구되는 기능·역할 정의
데이터 생산자·서비스 제공자 간
필요한 데이터 유통 규격 제시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승인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우리나라가 AI 표준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표준화기구(IEC) 합동기술위원회(JTC) 1/SC 42(인공지능)' 제4차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표준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고 13일 밝혔다.

'ISO·IEC JTC 1·SC 42'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보기술 분야 국제표준화를 위해 운영 중인 합동기술위원회(JTC 1)의 인공지능(AI) 분과위원회다.

이번에 승인된 표준은 빅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하는 단계별로 요구되는

<인공지능 관련 한국의 주요 표준화 성과>

표준화 기구(단체)		한국(과기정통부) 주도 주요 성과
ITU-T	SG11(신호프로토콜, 시험명세)	지능형 에지컴퓨팅 표준 제정
	SG13(미래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기능·요구사항 표준 등 3건 제정
	SG16(멀티미디어)	지능형 질의응답 시스템 프레임워크 표준 2건 제정 신규표준 1건 개발 착수
	SG20(사물인터넷·스마트시티)	경량지능형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 표준 개발 착수
JTC 1	JETI(미래전략기획그룹)	한국 주도로 SC 42 신설
	SC 35(사용자인터페이스)	대면통역시스템 표준 2건 제정 자동통역시스템 3건 개발
	SC 42(인공지능)	빅데이터-개요·용어 표준 1건 제정 빅데이터 참조구조 관련 표준 2건 제정
TTA		자율주행차 객체인식기술 등 표준초안 4건·기술보고서 3건 개발
포럼		인공지능 성능검증 방법, 인공지능 산업 분류체계 등 포럼 표준 10건 개발

/자료=과기정통부

공통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고, 데이터 생산자와 서비스 제공자간에게 필요한 데이터 유통 규격을 제시하고 있다. 이 표준은 통신·의료·금융·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솔루션 개발업체에 필요한 공통 기술규격으로 제공돼 제품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간에 상호 호환성을 보장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AI 관련 표준화 분야에서 주요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014년부터 JTC 1과 ITU-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 등 공적표준화기구를 통해 이번 빅데이터 참조구조 표준뿐 아니라 빅데이터 용어 표준, 지능형 질의응답 시스템 프레임워크 등 총 17개의 표준을 제정해 오고 있다.

또한 올해 'SC42'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개요 및 용어 표준 1건이 제정되고, 빅데이터 참조구조 관련 표준 2건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데이터 품질, 분야별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 인공지능시스템의 신뢰성 평가 등 AI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가 사회 전 분야로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확산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성과물이 국내외 표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아이폰11, 美 소비자평가 1위

사용자 만족·셀피 이미지 품질 고득점
아이폰11 시리즈, 5G는 지원 안 해

오는 18일 국내에서 사전예약판매를 시작하는 아이폰11이 먼저 출시된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전작 대비 눈에 띠는 혁신이 없어 찾는 소비자가 적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의 모습이다.

1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아이폰11 시리즈의 초기 판매량은 전작인 아이폰XS 시리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예약에서는 아이폰11 프로 맥스, 아이폰11 프로, 아이폰11 순으로 수요가 높았다.

애플은 일본, 대만 부품업체에 올해 생산하기로 했던 아이폰11 시리즈 물량(약 7000만대)에서 10%를 증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유력 소비자 평가지 컨슈머리포트의 평가에선 아이폰11 프로 맥스가 95점으로 1위, 아이폰11 프로는 92점으로 2위에 올랐다. 종전 1위였던 갤럭시S10플러스(90점)는 3위, 3위였던 갤럭시S10(90점)은 5위로 밀렸다.

아이폰11은 갤럭시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사용자 만족, 전면 셀피 이미지 품질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아이폰11 시리즈는 기본 모델인 아이폰11과 상위 모델인 11 프로, 11 프로 맥스 총 3종으로 나왔다.

기본 모델인 아이폰11은 6.1인치 LC D 디스플레이에 후면에는 1200만 화소의 광각, 초 광각 듀얼 카메라가 탑재됐으며, 전면에도 후면과 동일한 12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됐다. 블랙, 화이트, 레드, 퍼플, 그린, 옐로우 등 총 6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상위 모델인 아이폰11 프로와 11 프로 맥스는 각각 5.8인치, 6.5인치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아이폰11.

/애플

KT 협력사, 올 수출계약 500억 돌파

5G 레퍼런스 해외 기업들 관심 ↑
작년대비 해외 매출 7배 이상 증가

KT와 함께 해외 진출에 나선 협력사가 올 한해 동안 500억원이 넘는 수출 계약을 맺었다.

KT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23개 KT 협력사가 참가한 아시아·유럽·중동의 주요 글로벌 전시회 4곳에서 유명 해외 통신사와 수출 및 양해각서(MOU) 등 13건의 계약을 체결해 총 520억 원의 해외 매출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 KT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 5G 레퍼런스 효과로 해외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면서 2018년 기록했던 협력사 해외 매출 70억원을 7배 이상 뛰어넘었다.

KT는 지난 6월 아시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 '커뮤니아시아'를 시작으로 9월 세계 3대 ICT·가전 전시회 'IFA', 유럽 최대 광통신 전문



KT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23개 KT 협력사가 참가한 아시아·유럽·중동의 주요 글로벌 전시회 4곳에서 총 520억원의 해외 수출을 달성했다. 사진은 지난 9월 25일 더블린 이씨오씨(ECOC) 전시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전시회 '이씨오씨(ECOC)', 10월 중동·아프리카 최대 ICT 전시회 '자이텍스(GITEX)' 등 총 4개 전시회에 협력사 참가 기회를 제공했다.

KT는 'KT 파트너스관'을 마련하고 협력사에 독립된 전시 영역과 바이어 수출상담 공간을 제공했다. 전시회에

참가한 협력사의 한 관계자는 "앞선 기술과 솔루션을 보유했지만 약한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해외 진출이 힘들었는데 ICT 분야에서 공고한 KT 브랜드 신뢰도에 힘입어 글로벌업체와 많은 협상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채윤정 기자

스마트폰 화면, VR에서 그대로 즐긴다

LGU+ 'Pico 리얼플러스' 출시

LG유플러스는 VR기기 전문업체인 피코(Pico)사와 독점 제휴해 'LG V50 ThinQ'와 호환 가능한 VR 헤드셋인 'Pico 리얼플러스'를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Pico 리얼플러스는 4K(3840×2160)의 해상도와 818의 PPI(Pixel Per Inch)를 지원해 일체형 VR 헤드셋 기기인 'Pico G2 4K플러스'와 동일한 디스플레이 환경을 지원한다.

Pico 리얼플러스의 판매가는 25만원으로 46만9000원인 'Pico G2 4K플러스'보다 21만9000원 낮아진 가격으로 선보인다. LG유플러스 고객은 이용 요금제에 따라 판매가에서 최대 15만원 할인해 10만원에 구입 가능하다.

Pico 리얼플러스는 Pico G2 4K플러스의 고화질 디스플레이와 센서만 적용하고, 스마트폰과의 편리한 USB 케이블 연결을 통해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형 방식을 도입해 가격을 낮추면서 고화질 VR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폰 화면을 VR 해



LG유플러스는 VR기기 전문업체인 피코(Pico)사와 독점 제휴해 'LG V50 ThinQ'와 호환 가능한 VR 헤드셋인 'Pico 리얼플러스'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

드셋으로 그대로 옮기는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인터넷 서핑, 동영상 시청, U+프로야구, U+골프 등을 대 화면으로 시청할 수 있다.

/채윤정 기자